

제주드림타워, 라이브 커머서 여름 패키지 판매

북한리조트 제주드림타워는 16일 오후 7시부터 라이브 커머서 쿠팡 라이브를 통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객실 패키지를 판매한다. 투숙기간은 29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패키지는 65㎡ 객실 투숙과 레스토랑 4곳 조식, 한 컬렉션 팝업 플라자에서 커피 또는 티로 구성했다. 방송 중 추첨을 통해 3명에게 그랜드 스위트 무료 업그레이드, 5명에게 클럽 라운지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암흑기 오나

루나, 99% 대폭락...거래소서 퇴출 잇달아

한때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들었던 국내산 암호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T)가 휴지 조각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테라 가치안정 위해 루나를 담보로 소위 '암호화폐 돌려막기' 문제 커져 테라폼랩스 법인 해산해 신뢰도 ↓ "금융사기·러그풀" 투자자들 비난 이번 사태로 시장 장기침체 우려도



국내산 암호화폐 루나가 휴지 조각 수준으로 폭락한 가운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

●루나, 99% 하락 원인

15일 오후 2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BTC마켓(비트코인으로 암호화된 거래)에서 1루나 가격은 0.00000002BTC(약 1원)으로, 6일 0.0021BTC(약 8만 4000원)에서 대폭 하락했다. 99% 폭락한 것이다.

이번 폭락의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루나와 테라 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루나와 테라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대표와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의장이 공동 창업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코인으로, 테라 생태계에서 상호보완 역할을 해왔다.

특히 테라는 미국 달러화에 1대1로 고정된 1달러를 유지하도록 알고리즘으로 설계된 스테이블(안정적) 코인이다. 이를 위한 일종의 담보 역할을 현금이나 국채가 아닌 또 다른 자체 암호화폐인 루나를 팔아 테라를 사들여 달러화와의 가치 고정을 유지했다. 또 테라의 가치가 1달러보다 높아질 때는 이를 반대로 해왔다.

결국 법적·제도적 신뢰 기반이 없는 암호화폐 루나가 담보가 돼 소위 '코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급량을 조절한 것이 문제가 됐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

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테라의 시세가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는데도 가격이 복구되지 않았고, 테라를 떠받치는 루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싹트면서 루나에 대한 대량뱅크(예금 인출을 위해 몰려드는 현상)가 발생했다.

너도 나도 루나를 내다 팔고 이를 받아줄 사람이 없자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4월30일 진행된 주주총회 결의로 테라폼랩스코리아 법인이 해산된 것도 국내 투자자의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는 계기가 됐다.

결국 테라폼랩스는 13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테라 블록체인의 공식 중단을 공지했고,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잇따라 루나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로 예고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 업비트, 빗썸이 각각 16, 20, 27일 루나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권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 발행품(루나·테라)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고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실패를 자인했다.

●시름 깊어지는 루나틱

이처럼 루나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자 일명 '루나틱'이라 불리는 루나 코인 투자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루나에 대해 '스캠(사기)',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러그풀(가상자산 개발자가 프로젝트 투자자들을 모은 뒤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도주하는 사기 기법)'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또 "마통(마이네스 통장) 뚫어서 5000만 원을 넣었는데 완전히 박살났다"며 투자 손실에 대한 게시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적극적 투자성향을 가진 2030세대의 피해가 큰 가운데, 테라폼랩스를 향한 분노 표출도 적지 않다. 13일에는 권도형 대표의 자택 아파트 공용 현관에 몰래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남편이 집에 있느냐"고 물어본 뒤 달아난 남성이 자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는 아프리카 카TV에서 코인방송을 하는 BJ로 "루나를 20억 원어치 풀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손실을 비판해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오자 '경찰이

주말 사이 마포대교 순찰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퍼지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다. 15일 오후 2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3938만8000원이다. 12일 오후 4시 3750만 원까지 주저앉은 것에 비해 약간 반등했지만,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가인 8720만 원까지 치솟은 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 이상 떨어진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루나 사태가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개인 투자자에게 심어줘 시장의 위축과 함께 장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특히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하이원, 스마트홈링 아이스크림에듀와 협약



하이원리조트는 최근 스마트홈링 기업 아이스크림에듀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하이원리조트는 교육장소와 제반시설을 지원하고, 아이스크림에듀는 리조트와 연계된 교육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한다. 이와 함께 ESG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폐광지역 아동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할인 및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하이원리조트는 아이스크림에듀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사생대회, 캠프 등 단체행사 유치와 같은 세일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삼걸 하이원리조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하이원리조트에서 공부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11번가, 오늘부터 '블러썸 11마존' 진행



11번가는 수 백만 개 신규 상품이 추가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소개하기 위해 16일부터 5일 동안 '블러썸 11마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1번가의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의 새 상품을 신규 브랜드 별로 소개하는 행사다. 매일 5개 씩, 총 25개 브랜드를 선보인다. 패션, 잡화, 뷰티, 디지털, 가전 제품부터 주방, 인테리어, 건강식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11번가는 프로모션 기간 중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모든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장바구니 쿠폰과 2종의 7% 중복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KB국민, 비씨, 롯데 등 3개 카드사의 10% 장바구니 쿠폰도 받을 수 있다. 25개 인기 브랜드 기획전 상품에 대해서도 10% 중복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강

임산부 치질, 치료 타이밍 놓치면 악화 임신 6~9개월 사이 발병 가능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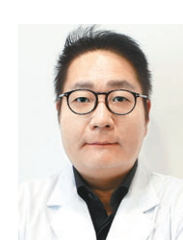
출산 후 배변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해 당황하는 여성들이 많다. 임신부 치질은 임신 과정 중 흔히 발생하는 항문 질환이다. 문제는 이러한 항문 질환을 수치스럽게 여겨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여성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치질은 매우 흔한 항문질환인데 연령, 성별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10명 중 7명이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신 중 치질 발병이 흔한 이유는 태아의 성장과 관련이 깊다.

임산부 치질은 출산 후 저절로 호전되기도 하나 대부분 치료 타이밍을 놓쳐 악화된다. 초기에는 가볍고 따가운 증상을 겪는다. 이후 배변 과정 중 출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안쪽 점막의 돌출이 이뤄지는데 이로 인해 앉는 자세에 불편함을 느낀다. 만약 점막 돌출이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채 손으로 밀어 넣어야 복구되는 경우라면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임신부 치질은 보통 6~9개월 사이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임산부 치질은 출산 이후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산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 빠르게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 방법은 식이요법, 온수 좌욕, 약물요법 등의 비수술 요법과 메스로 치핵을 제거한 뒤 실로 묶는 결찰술, 밀러 내려오는 직장 항문 점막을 상부로 당긴 뒤 고정시키는 PPH 수술 등의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꾸준한 좌욕 실천,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산책과 더불어 배변 후 항문을 청결히 하는 개인 노력도 필요하다.



다원외과 이동원 원장

LGU+, 디지털 광고·커머스 강화



LG유플러스는 '초개인화 디지털 퍼포먼스 광고사업자'로 성장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 광고·커머스 분야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조직 개편에서 신규사업추진부문을 산하의 광고사업 조직을 CEO(최고경영자) 직속의 사업단으로 개편했다. 이달 13일에는 광고사업단장으로 15년 이상 데이터 기반 광고·커머스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관련 분야 전문가인 김태훈 상무(사진)를 신규 선임했다. 광고사업단은 올해 ▲신규 광고상품 발굴 ▲맞춤형 광고 확대 ▲데이터 커머스 플랫폼 'U+북' 개편을 추진한다. 통신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수익화와 커머스 사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김병근 기자

롯데, 바이오사업 톱10 목표...10년간 2조5000억 투자한다

자회사 '롯데바이오로직스' 신설 美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향후 의약품 사업도 빠르게 추진

롯데가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향후 10년간 약 2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롯데지주 산하에 자회사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CDMO(위탁개발생산) 톱10 기업으로 거듭나는 게 목표다.

그 시작으로 항체 의약품 시장에 진출했다. 롯데지주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시에 위치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결정했다. 인수 규모는 1억6000만 달러(약 2000억 원)다. 2억 2000만 달러(약 28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도 포함돼 공장 인수 완료 후에도 BMS와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



롯데가 인수한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소재 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사진제공 | 롯데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이사회에서 "BMS 시러큐스 공장의 우수한 시설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롯데와 시너지를 만들어 바이오 CDMO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 회장은 4월 미국 출장 중 시러큐스 공장을 직접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420명의 시러큐스 공장 인력들은 64개국 이상의 GMP(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승인을 통해 대량 생산 시스템

에서도 의약품 품질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술 역량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 시험생산, 규제 기관 허가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항체 의약품 사업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러큐스 공장에서는 총 3만 5000리터의 항체 의약품 원액 생산이 가능하다. 신규 제품 수주 및 공정 개발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러큐스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도 단행할 예정이다. 북미 지역 판매 영업을 위한 미국 법인 설립과 10만 리터 이상 규모의 생산 공장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원직 롯데지주 신성장2팀장은 "시러큐스 공장은 임상 및 상업 생산 경험이 풍부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다. 진입 장벽이 높은 바이오 사업에서 롯데가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매물로 판단했다"며 "사업 초기 항체 의약품 CDMO 집중을 통해 바이오 사업자로서 역량을 입증하며 사업 규모와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